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

보도시점 배포즉시 배포 2025.7.8(화)

통상교섭본부장, 미국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제조업 협력방안 논의

- 미국 첨단산업·제조업 재건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는 한국임을 강조 -

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의 상호관세 서한 발표 직후인 7.7(월) 18시(美 현지시간) 미국 워싱턴 D.C.에서 하워드 러트닉(Howard Lutnick) 상무부 장관을 만나 미국의 對韓 관세조치 해소를 위한 한미 간 제조업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였다.

여 본부장은 한국이 오랜 동맹국으로서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특별한 파트너임은 물론, 한국의 첨단산업 및 제조업 역량, 양국 간 긴밀히 연계된 산업공급망 등을 감안할 때 한국이 미국의 제조업 재건을 위한 최적의 상대임을 피력하였다. 또한, 양국 간 제조업 협력은 무역의 확대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자 상호 윈윈을 통해 호혜적으로 미국 관세 조치를 상쇄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라고 설명하였다.

아울러, 동 제안이 조속한 시일내 구체화되고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자동차, 철강 등 품목별 232조 관세 철폐 또는 완화가 매우 중요하므로, 최종 합의에는 품목관세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.

여 본부장은 “8.1일까지 새로운 유예기간으로 3주 정도 시간을 확보했으나, 여유있는 시간은 아니므로 본격적인 협상 가속화로 랜딩존(landing zone)을 찾아야 할 시점”이라면서, “한미 제조업 협력방안을 구체화해 나가면서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 도출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한편, 여 본부장과 러트닉 상무장관은 이번 면담에 이어 7.9(수, 현지시간)에도 추가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하였다.

담당 부서	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	책임자	과 장	안홍상(044-203-5650)
		담당자	사무관	김태우(044-203-5657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